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 | 2020. 9.

국립국어원 2020. 9.

한글 맞춤법 잘 지키고 있나요?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 2020. 9.

쉽게 읽는 문법 용어(1) **문법 범주(3)**

실전 띄어쓰기(1) **우리, 지금부터라도! 헛갈리는 조사 띄어쓰기**

국어원 소식 (1) **국립국어원, 인공지능 학습용 한국어 자료 대규모 공개**

우리말 다듬기(1) **세상을 움직이는 이야기의 힘 이야기 산업**

표준어 바깥의 세상 **여름 벗 ‘매미’**

말뭉치로 바라보기 **‘나쁜 놈’들 전성시대: 모리배에서 사기꾼까지**

쉽게 읽는 문법 용어(2) **문법 범주(4)**

실전 띄어쓰기(2) **온 국민의 건강한 추석맞이-온,전,범 띄어쓰기**

국어원 소식 (2) **‘사물놀이’와 ‘가야금’을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

우리말 다듬기(2) **코로나 일상**

말뭉치로 바라보기 **힐버트박사기념사업회 김동진 회장에게 듣는
푸른 눈의 한글학자 호머 힐버트 이야기**



목차

심표, 마침표. | 2020. 9.

국어 배우기

2	쉽게 읽는 문법 용어	문법 범주(3)
6		문법 범주(4)
10	표준어 바깥의 세상	여름 벗 ‘매미’
14	실전 띄어쓰기	우리, 지금부터라도! 헛갈리는 조사 띄어쓰기
16		온 국민의 건강한 추석맞이-온,전,범 띄어쓰기

국어 알리기

18	국어원 소식	국립국어원, 인공지능 학습용 한국어 자료 대규모 공개
22		‘사물놀이’와 ‘가야금’을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
26	국어정책 통계	한글 맞춤법 잘 지키고 있나요?
30	우리말 다듬기	세상을 움직이는 이야기의 힘 이야기 산업
32		코로나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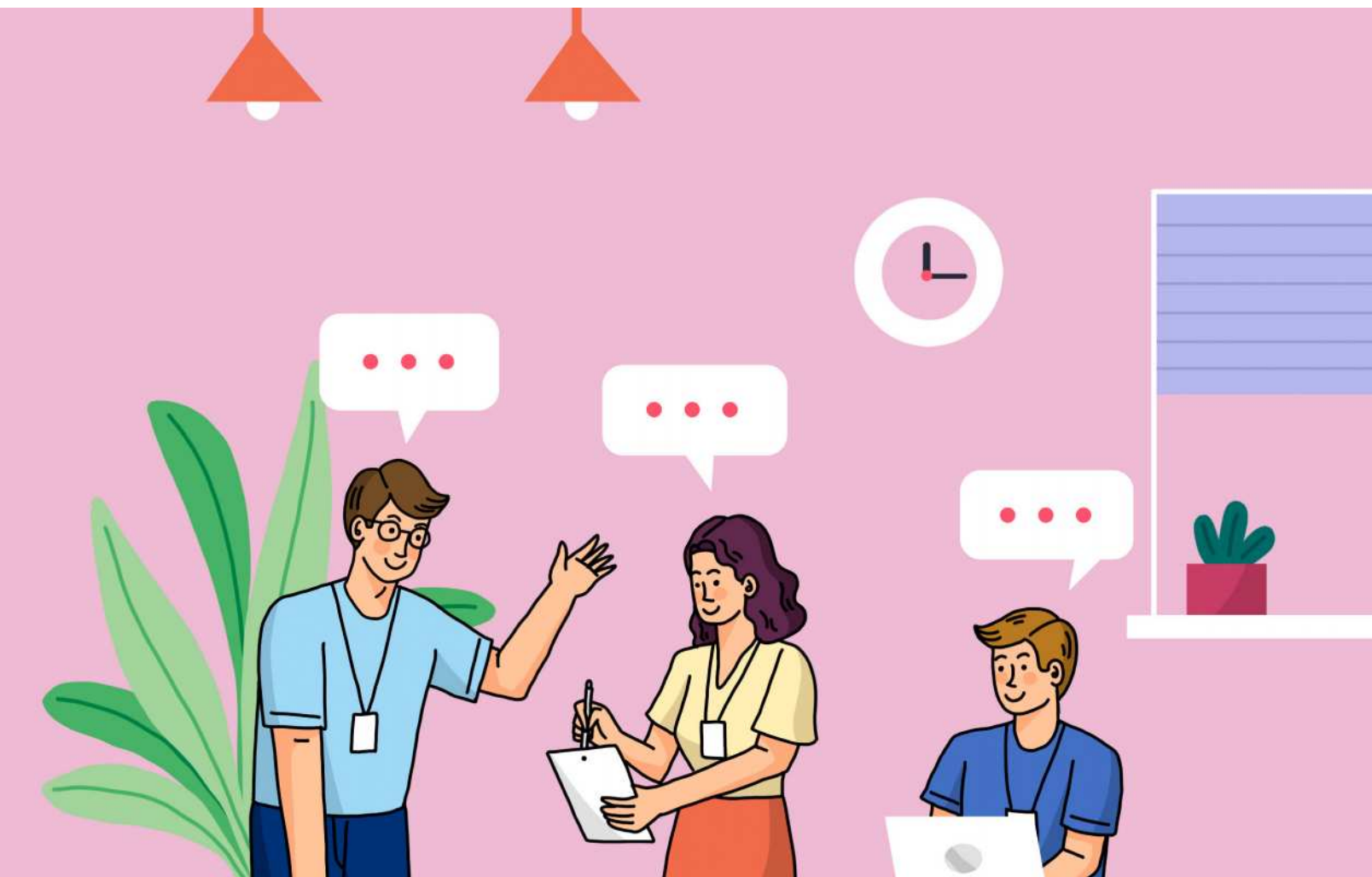
국어로 바라보기

34	말뭉치로 바라보기	‘나쁜 놈’들 전성시대: 모리배에서 사기꾼까지
38	우리말 그리고 사람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김동진 회장에게 듣는 호머 헐버트 이야기

국어로 함께하기

46	우리말 풀기	독자 참여 행사
50		독자 참여 행사

문법 범주(3)



글. 이선웅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 다룰 문법 범주는 ‘높임’과 ‘겸양’이다. 우리말은 높임과 겸양을 위한 표현이 발달되어 있어서 높임과 겸양을 묶어 2회에 걸쳐 설명하기로 한다. 높임과 겸양은 문법 형태나 준문법 형태로 실현되지 않고, 간혹 특수한 어휘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어 순수한 문법 범주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어른이 먹는 끼니를 가리켜 ‘진지’라는 높임의 특수 어휘를 사용하거나 뒷사람 앞에서 ‘나’ 대신 겸양의 특수 어휘인 ‘저’를 사용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의 문법 범주는 아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론적 엄밀성이 약간 훼손되더라도 학교 문법 수준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여섯째, 높임법은 경어법, 대우법, 존대법, 존경법, 존비법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 문법 범주로서,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을 높이거나 낮추는 의도를 나타내는 범주이다. 높임법은 높이거나 낮추는 대상의 종류에 따라 크게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으로 나뉜다. 차례대로 살펴본다.

- (1) 내가 식당에 간다.
- (2) 아버지께서 식당에 가신다.

(1)과 (2)를 비교해 보면, (1)에서 ‘가’ 대신에 (2)에서 ‘께서’가 쓰였고, (1)에는 없는 ‘-시-’가 (2)에 쓰여 ‘아버지’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주격 조사 ‘께서’가 쓰이거나 선어말 어미 ‘-시-’가 쓰여 문장의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범주를 주체 높임이라 한다. 문장의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주체라고 하고, 그 ‘주체’를 높인다는 뜻이다. 주체 높임은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 (3) 할아버지께서 수염이 많으시다.
- (4) 선생님은 따님이 예쁘십니다.
- (5) 손님, 이 신발은 좀 크시네요.

(3)에서 ‘많다’의 주어는 ‘수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염’은 높일 필요는 없으나 ‘할아버지’가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많다’에 ‘-으시-’를 붙인 것이다. (4)에서도 ‘예쁘다’의 주어는 ‘따님’이지만 ‘선생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 딸이 설령 꼬마라고 하더라도 ‘-시-’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에 소속된 사람이나 사물을 높이는 주체 높임을 간접 높임이라고 한다. 간접 높임이 아닌 일반적인 주체 높임은 직접 높임이다.

(5)는 간접 높임이 과도하게 적용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간접 높임은 높임 대상의 신체 일부, 친족이나 지인, 고정적인 소유물이 주어로 나타났을 때 적용되는데, (5)에서처럼 일시적인 상황에서 높임 대상과 관련된 사물까지 높이는 것은 과도한 간접 높임으로서 전통적 언어 예절에는 맞지 않는 표현이다.

- (6) 할아버지, 아버지가 갔어요.
- (7) (할머니가 어린 손주에게) 애야, 엄마는 언제 오시니?

(6)의 화자는 ‘아버지’의 자녀일 것이므로 ‘갔어요’가 아닌 ‘가셨어요’로 쓰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인 ‘할아버지’가 ‘아버지’보다 뒷사람이므로 그것을 고려하여 ‘-시-’를 쓰지 않은 것이다. 이를 ‘압존(壓尊)’이라고 한다. 존대하는 마음을 눌러 버린다는 뜻이다. 반대로 (7)에서 ‘할머니’에게 ‘엄마’는 아랫사람이므로 ‘-시-’를 쓸 필요가 없을 것이나 듣는 사람인 ‘손주’가 ‘엄마’보다 아랫사람이므로 그것을 고려하여 ‘-시-’를 쓴 것이다. 이를 ‘가존(加尊)’이라고 한다. 존대하는 표현을 덧붙인다는 뜻이다.

- (8) 나는 개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
 (9)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
 (10) 영수는 동생에게 선물을 주었다.
 (11) 영수는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

(8)에서는 데리고 나가는 대상이 ‘개’이지만 (9)에서는 ‘할머니’이다. (10)에서는 주는 행위를 ‘동생’에게 한 것이지만 (11)에서는 ‘할아버지’에게 한 것이다. 그에 따라 ‘데리다’ 대신에 ‘모시다’를, ‘주다’ 대신에 ‘드리다’를 쓰고 있다. 또한 (10)에서는 부사격 조사 ‘에게’를 쓰고 있으나 (11)에서는 ‘께’를 쓰고 있다.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객체라고 하는데, (9)나 (11)에서처럼 목적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특수 어휘를 쓰거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께’ 혹은 특수 어휘를 쓰는 높임 범주를 객체 높임이라고 한다.

높임법과 그 종류, 다시 정리해 볼까요?

- 높임법:**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을 높이거나 낮추는 의도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
주체 높임: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것
간접 높임: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에 소속된 사람이나 사물을 높이는 주체 높임
압존: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더라도 듣는 이가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일 경우 주체를 높이지 않는 것
가존: 말하는 이에게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듣는 이가 그보다 더 낮은 사람일 경우 주체를 높이는 것
객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

문법 범주(4)



글. 이선웅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높임법의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을 다룬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상대 높임을 마저 알아보고 겸양법까지 설명하기로 한다. 상대 높임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상대)를 언어적으로 대우하는 범주이다. 주체 높임, 객체 높임과는 달리 상대 높임은 듣는 이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낮추는 것까지 포괄한다. 그래서 ‘높임’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여 ‘청자 대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도 있다. 이 글에서는 학교 문법의 용어인 ‘상대 높임’을 사용한다.

상대 높임은 일반적으로 네 등급의 격식체와 두 등급의 비격식체로 나뉜다. 격식체에 대해서는 여러 잘못된 설명이 많은데, 정확히 말하면 듣는 이를 대우하는 데에서 틀[格/式]을 엄격히 지킨다는 뜻이다. 즉 듣는 이에 대한 대우의 정도와 의식을 틀에 맞추어 정확히 표현한다는 뜻이다. 비격식체는 이와 다르다. 친밀감을 나타내려는 의식을 반영하여 높임과 낮춤을 느슨하게 드러낸다. 높임과 낮춤 못지않게 듣는 이와 거리감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이가 가깝다면 높은 사람에게도 때때로 낮춤말을 쓰기도 한다. 여섯 등급의 용어는 명령형 종결 어미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명령형 종결 어미가 듣는 이에 대한 높낮이의 의식을 직관적으로 가장 강하게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 이제 여섯 등급의 용어를 보도록 하자. 격식체로는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하십시오체가 있다. 해라체가 가장 낮추는 등급이고 하십시오체가 가장 높이는 등급이다. 해라체는 듣는 이가 자기와 비슷하거나 낮은 사람일 때 쓰이는 상대 높임이다. 종결 어미가 ‘-아라/어라, -다, -(으)니, -(으)나, -자, -구나’ 등이면 해라체가 된다. 하게체는 듣는 이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듣는 이에 대한 존중 의식을 드러내는 상대 높임이다. 종결 어미가 ‘-게, -네, -(으)ㄴ가, -나, -(으)세, -구먼’ 등이면 하게체가 된다. 하오체는 듣는 이가 자기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가정되거나 실제로 비슷한 위치에 있을 때, 듣는 이에 대한 존중 의식을 드러내는 상대 높임이다. 종결 어미가 ‘-(으)오, -소, -(으)ㅂ시다, -구려’ 등이면 하오체가 된다. 하십시오체는 듣는 이가 가장 높은 사람일 때 쓰이는 상대 높임이다. 종결 어미가 ‘-(으)십시오, -ㅂ니다/습니다, -ㅂ니까/습니까’ 등이면 하십시오체가 된다. 하오체와 하게체는 근래에 쓰임이 급격히 줄고 있다.

- (1) 네가이 책을 읽어라. (해라체)
- (2) 자네는 이리로 앉게. (하게체)
- (3) 오후에 회의를 합시다. (하오체)
- (4) 비가 올 것 같습니다. (하십시오체)

비격식체로는 해체, 해요체가 있다. 해체는 듣는 이를 격의 없이 편하게 낮추는 상대 높임이다. 낮추려는 의식보다는 편하게 말을 하려는 의식이 강한 등급이다. 종결 어미가 ‘-아/어, -자, -네, -(으)ㄴ가, -(으)ㄹ게, -나’ 등이면 해체가 된다. 해체와 하게체는 일부 어미를 공유한다. 해요체는 듣는 이를 격의 없이 편하게 높일 때 쓰이는 상대 높임이다. 듣는 이가 높임의 대상인데 편하게 말을 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된다. 해체 종결 어미에 보조사 ‘요’를 붙이면 해요체가 된다. 거꾸로 해요체에서 ‘요’를 빼면 해체가 되므로, 말을 반(半)만 했다고 하여 해체를 반말체라고 하기도 한다. 일상적으로 낮춤말을 가리키는 ‘반말’과는 의미가 다르다.

- (5) 엄마, 나두 시간만 잘게. (해체)
- (6) 수현 씨, 저를 사랑하시나요? (해요체)

일곱째, 겸양법은 남을 높이는 범주가 아니라 자기 혹은 자기가 포함된 집단을 낮추는 범주로서 공손법이라고도 한다. 겸양법은 결과적으로 상대 높임법과 유사한 효과를 거두기는 하나, 겸양법은 개념적으로 높임법과 분명히 구분된다. 겸양법은 선어말 어미 ‘-오-, -옵-, -사오-’나 겸양의 특수 어휘인 ‘저, 저희’ 등에 의해 실현된다.

(7) 9월 30일 오후 2시에 저희 결혼식이 있사오니...

상대 높임법과 겸양법, 다시 정리해 볼까요?

상대 높임: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언어적으로 대우하는 범주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하십시오체, 해체, 해요체의 여섯 등급이 있음.

격식체: 듣는 이를 대우하는 데에서 틀을 엄격히 지키는 상대 높임

비격식체: 듣는 이를 대우하는 데에서 틀을 느슨하게 지키는 상대 높임

겸양법: 말하는 이가 자기 혹은 자기가 포함된 집단을 낮추는 범주

여름 벌 ‘매미’



글. 이길재(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 일만이 형의 말로는 참매미가 올면 한여름이고 **{불매미}**가 올면 여름이 다 간 거라고 했다.
《이태선(2011): 꽃무릇》

이태선의 소설 <꽃무릇>에 보이는 ‘불매미’가 반갑다. 어릴 적 해질 무렵에 고향 집 뒤뜰에 있는 가죽나무에서 ‘불매미’는 어지간히도 울어 댔다. 붉은 몸빛을 띤 ‘불매미’는 유난히도 가죽나무를 좋아했다. 전라북도가 고향인 필자가 고향말로 익힌 매미는 ‘뜨름매미, 미암매미, 불매미, 시오시매미, 와가리, 찜매미(찌찌매미)’이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모두 전라북도 방언인 셈이다.

‘찜매미’ 혹은 ‘찌찌매미’는 ‘찜찜찜...’, ‘찌찌찌...’ 하면서 운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표준어형은 ‘털매미’이다. 강원 지역에서는 ‘보리매무’라고도 한다. 긴 땅속 생활을 끝내고 가장 먼저 세상 빛을 보는 매미가 바로 ‘찜매미’이다. ‘찜매미’가 울면 여름이 시작되는 것이다.

‘시오시매미’는 ‘시오시시오시’ 하면서 운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표준어형은 ‘애매미’이다. 강원 지역에서는 ‘씨조지매미’, 경북 지역에서는 ‘고추매미, 싸롱이’라고도 한다. ‘찜매미’와 반대로 가장 늦게 세상 빛을 보는 매미가 ‘시오시매미’이다.

‘뜨름매미’는 ‘뜨름뜨름’ 하면서 운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표준어형은 ‘쓰름매미’이다. 강원 지역에서는 ‘싸울매미’, 경남 지역에서는 ‘씨라리이’, 전북 지역에서는 ‘뜰내미’, 뜰매미, 충남 지역에서는 ‘씨롱’이라고도 한다.



‘미암매미’는 ‘미암미암’ 하면서 운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표준어형은 ‘참매미’이다. 어릴 적엔 “저 매미는 뭐가 그리 미안해서 온종일 ‘미안하다고’ 우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더랬다. ‘미암’은 옛말 “가 변한 말이다.

‘와가리’는 ‘와갈와갈’ 운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표준어형은 ‘말매미’ 혹은 ‘왕매미’이다. 강원 지역에서는 ‘왕매미’, 경북 지역에서는 ‘버리매미, 큰매미’, 전남 지역에서는 ‘대매미’, 제주 지역에서는 ‘왕자리, 왕잘, 왕재, 왕재열, 왕잘’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왕-’이 붙은 까닭은 몸집이 크기 때문이다.

‘불매미’는 우는 소리가 아닌 붉은 몸빛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표준어형은 ‘유지매미’ 혹은 ‘기름매미’이다. 전남 지역에서는 ‘유리매미’라고도 한다. 이 말들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뜨름매미, 뜰매미, 싸울매미, 싸라리이, 미암매미, 시오시매미, 씨조지매미, 싸롱이, 와가리’ 등은 매미의 울음소리를 따서 만들어진 말들이다. 반면에 ‘불매미, 유리매미, 고추매미, 버리매미, 큰매미, 대매미, 왕매미, 보리매무’ 등은 매미의 몸빛이나 크기와 같은 특징을 따서 만들어진 말들이다.

- 1) ‘내미’는 ‘매미’의 전북 방언형이다.
- 2) ‘자리, 잘, 재, 재열, 켈’은 ‘매미’의 제주 방언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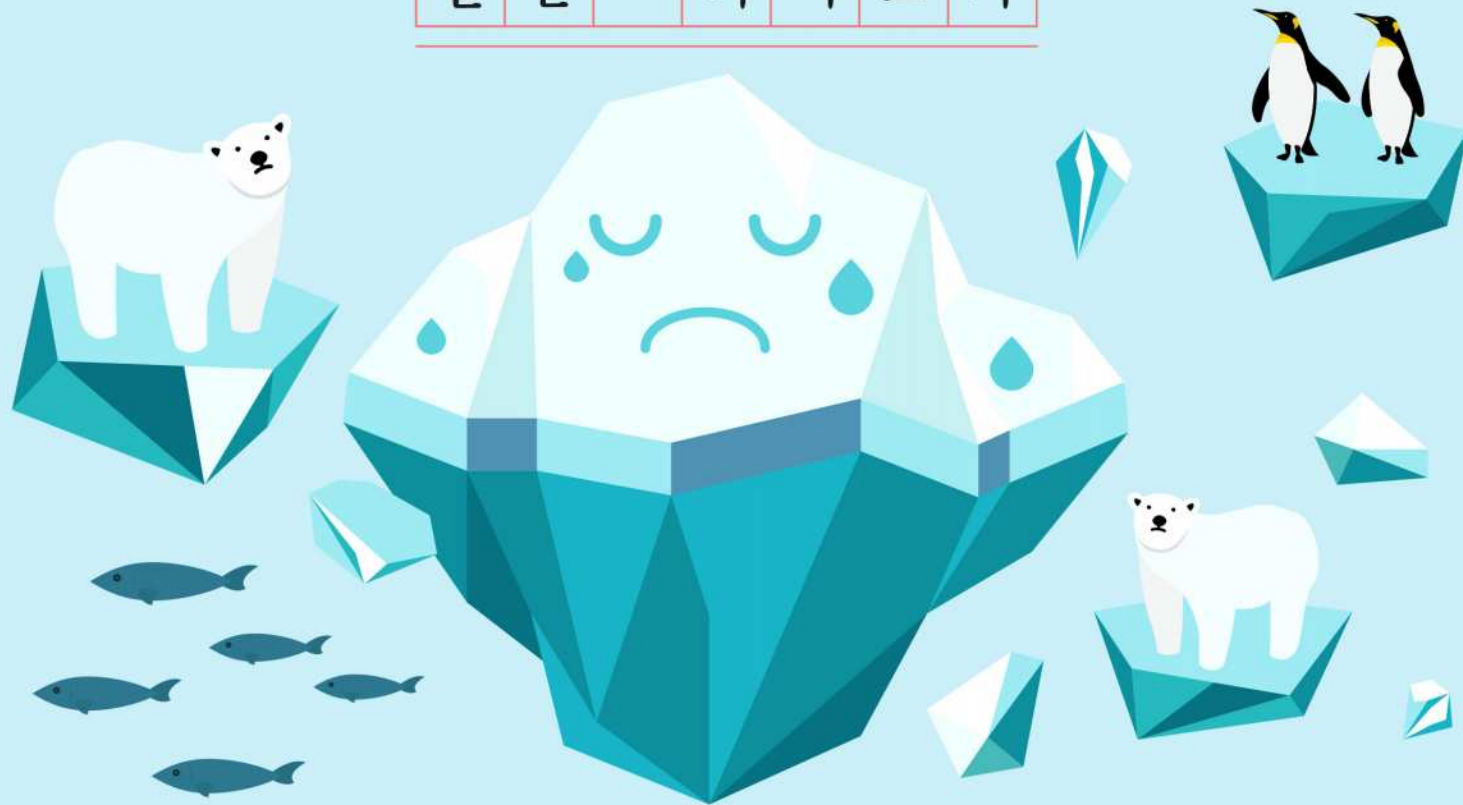
매미잡기는 여름날 친구들과 함께했던 즐거운 놀이 중 하나였다. 매미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매미채로 손쉽게 잡을 수도 있고, ‘밀껍’이나 ‘거미줄’을 이용해서 잡을 수도 있다. 물론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맨손으로도 잡는다.

보리밭에 절로 자란 밀 이삭을 끊어다가 밀알을 추려 낸 다음 입에 넣고 계속해서 씹으면 점성이 꽤 강한 ‘밀껍’이 된다. 이 밀껍을 긴 막대기나 장대의 끝에 붙여서 높은 나무에 매달린 매미를 탁 찍어서 잡는 것이다. 밀껍이 없을 땐 거미줄을 이용하기도 한다. 철사를 둥그렇게 만들어 긴 막대기나 장대의 끝에 매달고 그 위에 나뭇가지에 쳐져 있는 거미줄을 빙 둘러가며 감으면 거미줄뭉치가 만들어지는데 이 거미줄의 점성을 이용하여 나무에 매달린 매미를 잡는 것이다.

자연 속에서 매미, 잠자리, 풍뎅이를 잡으며 맘껏 뛰놀던 그때가 그리다. 아니, 그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들이 그리다. 코로나 때문에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요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진 요즘 더욱 간절하다. 조금 다닐 만해지면 막걸리 한 병 사들고 아직도 고향을 지키며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야겠다.

우리, 지금부터라도! 헛갈리는 조사 띄어쓰기

실 전 띄 어 쓰 기



실 전 띄 어 쓰 기

국립국어원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되돌리기는커녕
기상 이변이 더욱 심해질 거예요.

그래, 이것만이라도!
나라고 못하겠어?

탄소 배출하지 않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군 그래.

실 전 띄 어 쓰 기

국립국어원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려는 마음이
지구를 되살릴 수 있어요.
우리, 지금부터라도 함께 노력해 봐요.

국립국어원

구별이 어려운 조사의 띄어쓰기를 알아볼까요?

조사는 항상 앞말에 붙여 써요.
몇 개가 연이어 나오더라도!

- 돕기는 **커녕** 방해나 마라.
- 술 **일랑**은 마실 생각도 마라.
-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뿐만**이 아니다.
- 학교에 **서만**이라도 공부하자.
- 다음 휴게소에서 **부터**는 네가 운전하렴.

국립국어원

우리도 조사예요!

- **그래**: 청자에게 문장의 내용을 강조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 그것참, 신통하군 **그래**.
- **깨나**: 어느 정도 이상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돈 **깨나** 있다고 남을 무시해선 안 된다.
- **마따나**: '말한 대로', '말한 바와 같이' 등의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 자네 말 **마따나** 서둘러 가야겠네.
- **서간**: '...이랑 함께'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형은 늘 누나 **서간** 동고했다.
- **새로**에: '고사하고', '그만두고', '커녕'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화를 내기는 **새로**에 싫은 소리 한번 한 적 없는 동생이었다.
- **인즉**은: '...으로 말하면', '...을 보자면', '...을 듣자면' 등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사실 **인즉**은 이렇습니다.

실 전 띄 어 쓰 기

국립국어원

우리의 노력만이
기상 이변으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어요.

실 전 띄 어 쓰 기

국립국어원

우리, 지금부터라도!
헛갈리는 조사
띄어쓰기

실 전 띄 어 쓰 기

국립국어원

이번 폭우는
장마라기보다는 기후 변화라고들 말합니다.

온 국민의 건강한 추석맞이 온, 전, 범 띄어쓰기



실전 띄어쓰기

국립국어원

여보, 엄마가 명절 음식을 보내셨네! 온 식구가 연휴 내내 배부르겠어!

만나지는 못해도 온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영상통화가 있어 다행이구나.

엄마, 온마리로 구운 도미와 갈비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사랑해요.

전방위로 애쓰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번 명절에는 집에서 머무르는 건 어떨까요.

일상에서 흔히 쓰지만 헛갈리는 관형사와 접두사의 띄어쓰기를 알아봐요.

실전 띄어쓰기

국립국어원

관형사와 접두사 구분하기

- 관형사는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 꾸며 주는 별개의 단어이므로 띄어 써요.
- 접두사는 단어의 앞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이므로 붙여 써요.

뜻은 비슷해도 관형사면 띄어 쓰고, 접두사라면 붙여 써요.

온 국민 / 전 국민 / 범 국민
온 세계 / 전 세계 / 범 세계

* '범'은 항상 붙여 쓰는 접두사예요.

물론, 관형사가 뒷말과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되는 경우에는 붙여 써야 해요.

온-종일 전-방위 전-인구 전-천후 온-마리

실전 띄어쓰기

국립국어원

온 마음으로
전 국민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엄마, 달이 밝아서 온 동네가 환해요!

추석 달밤에 체조 한판 어때?

실전 띄어쓰기

국립국어원

온 국민의 건강한 추석맞이

온, 전, 범 띄어쓰기

실전 띄어쓰기

국립국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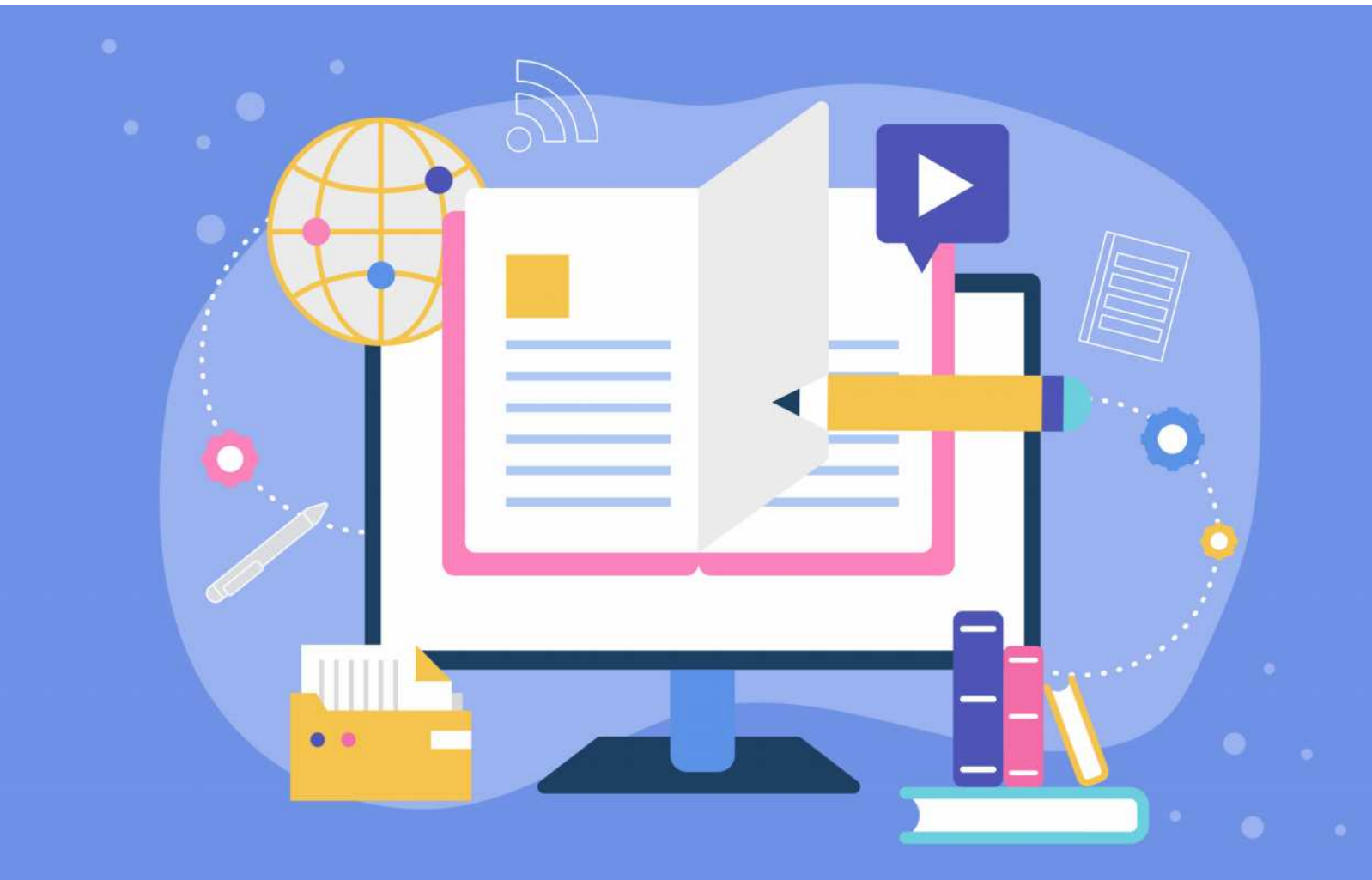
명절인데, 온종일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하네.

어쩌겠어. 범국가 적인 방역 정책인데 우리 식구도 동참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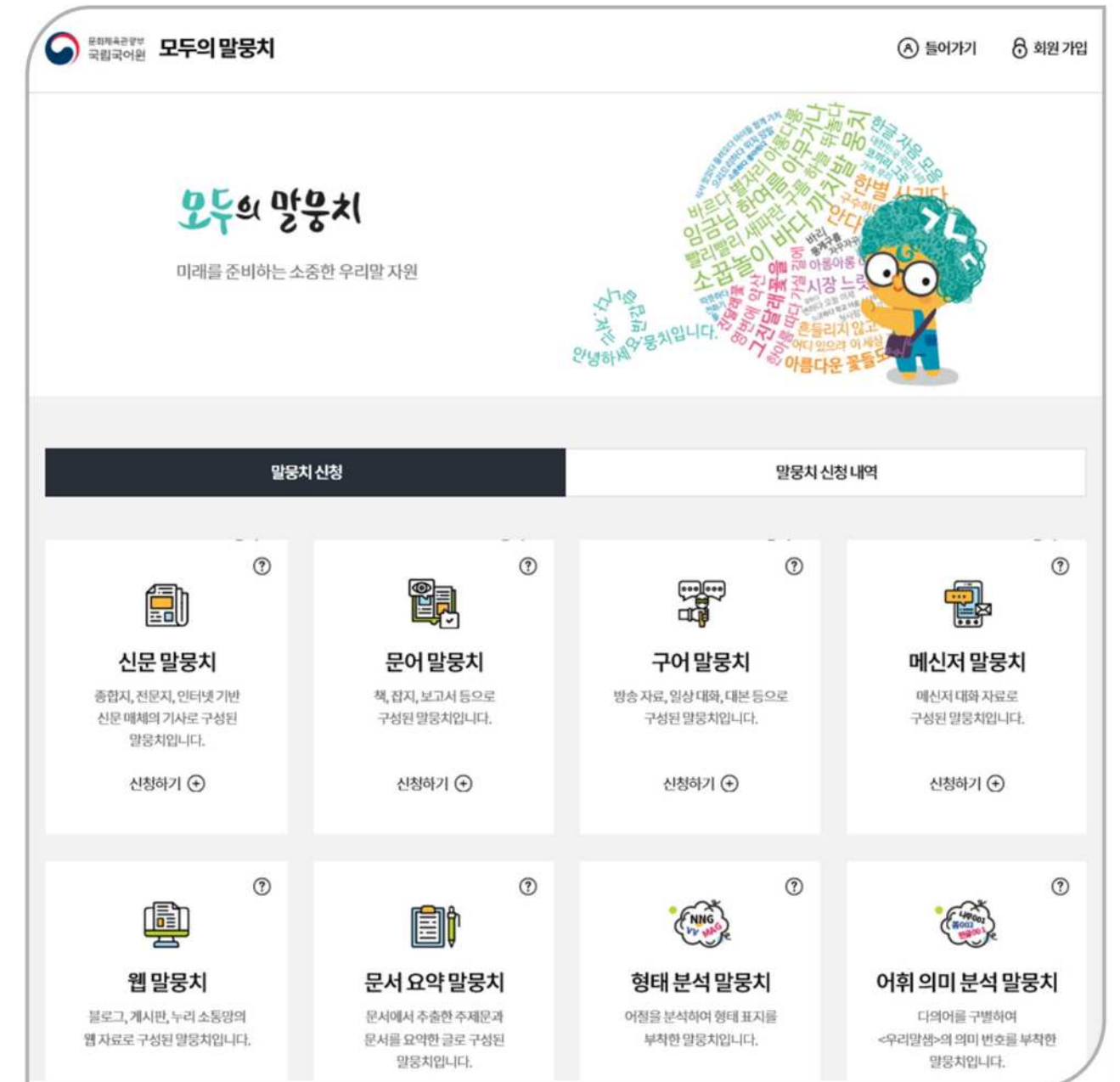
딩동! 택배요!

전 세계가 힘든 이 시기에도 어김없이 한가위가 다가왔어요.

국립국어원, 인공지능 학습용 한국어 자료 대규모 공개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인공지능의 한국어 처리 능력 향상에 필수적인 한국어 학습 자료 13종 18억 어절 분량을 8월 25일(화)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에서 공개했다.



▲모두의 말뭉치 첫 화면

국립국어원에서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한국어 분야의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전문 분야에서는 말뭉치(corpus)라고 한다. 챗봇이나 인공지능 비서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알아듣고 분석하여 말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다양한 한국어 말뭉치로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 인공지능 기술의 성능 향상은 많은 양의 품질 좋은 한국어 말뭉치 확보에 달려 있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2018년부터 인공지능 산업계와 관련 연구 기관 등에서 공공재로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한국어 학습 자료 구축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작년까지 구축한 18억 어절 규모의 말뭉치이다. 공개 자료는 국립국어원에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여 구축한 것이며 ‘모두의 말뭉치’ 사이트에서 온라인 약정서를 작성, 승인을 받으면 누구나 파일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지난 1998년에서 2007년까지 ‘21세기 세종계획’을 추진하여 약 2억 어절의 자료를 구축, 공개한 바 있다. 10여 년이 지난 뒤 이번에 다시 공개하는 자료는 예전보다 9배 많은 것으로, 그동안 공개된 학습 자료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던 한국어 처리 기술이 든든한 지원군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구축한 자료에서는 지난 ‘21세기 세종계획’에 비해 일상 대화, 메신저, 웹 문서 등 구어체 자료의 비중을 높였다. 이는 최근 인공지능 스피커, 챗봇 등의 대화형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구어체 대화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일상 대화 자료의 경우 표준어 위주의 수집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지역별, 연령별로 다양한 대화 자료를 수집하여 인공지능 기술에서 지역별 방언도 처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모두의 말뭉치’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에는 다양한 한국어 사용 양상이 담긴 최근 10년간의 신문 기사와 서적 20,188종,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음성 대화와 메신저 대화, 방송 자료, 대본 등이 포함되었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의 블로그, 게시판 등의 자료 210만 건도 포함되었다. 또한 컴퓨터가 한국어를 더 잘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 자료를 더욱 정밀하게 형태, 구문, 의미, 개체 등의 언어 단위별로 분석한 자료 1,100만 어절과 한국어에 대한 사용자의 직관과 판단 정보를 분석한 문법성 판단과 어휘 관계 자료 40만 건도 포함되었다.

초기 구축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한국어 말뭉치의 대규모 공개로 한국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과 새싹기업 등이 따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한국어 처리 기술 개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기업이나 관련 연구 기관 등도 대규모의 기초 자원을 제공받게 되어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성능 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국립국어원 소강춘 원장은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국어 전문 기관의 이점을 살려 날로 변화하는 언어를 신속하게 반영한 말뭉치와 다양한 고품질의 언어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 공개하여 한국어 인공지능 기술을 뒷받침하는 한국어 자원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립국어원은 이번에 공개한 자료의 의의와 활용을 주제로 한 온라인 전문가 토론회를 10월 초에 개최할 예정이다.

그 외 공개 대상 자료 내역, 공개 자료 이용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물놀이’와 ‘가야금’을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립국악원(원장 임재원),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과 함께 국악계와 공연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요 국악용어 300개에 대한 ‘국악용어 영문 표준 번역 시안(이하 표준 번역 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기반, 우리 국악의 세계화 도모

그동안 국악용어는 번역어의 표준이 없어 국내외 국악 문화공연과 국악 보급 과정에서 다양한 영문 용어가 사용되었고, 이는 우리 국악의 세계화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에 외국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국악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 번역 시안’을 마련했다.

‘표준 번역 시안’은 국악용어 전체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추어 적고 그 뒤에 용어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을 영어로 덧붙여 설명하는 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사물놀이’는 ‘Samullori Instrumental Music’으로, ‘가야금’은 ‘Gayageum Zither’로 적는 방식이다.

번역 방식	국악용어의 로마자 표기 + 후부 요소(용어의 속성) 의미 번역	
국악용어		
사물놀이	Samullori	Instrumental Music
가야금	Gayageum	Zither(목이 없는 납작한 현악기)

이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체부훈령 제427호)에서 정한 자연 지명이나 문화재 등의 번역 표기 원칙과 같다.* 우리 국악용어들이 외국인들에게는 덜 알려진 상황을 고려한 원칙이며, 공공 용어 번역 전문가와 한국 방문 외국인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도 해당 표기 방식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 예: 한라산 Hallasan Mountain, 경복궁 Gyeongbokgung Palace

〈한국 방문 외국인 대상 국악용어 영문 번역안 선호도 조사 결과〉

번역 방식	국어	국악용어 로마자 표기	국악용어 로마자 표기 + 후부 요소 의미 번역 병기	국악용어 의미 번역
번역안 선호도				
번역안 예시	대금	Daegeum	Daegeum Flute	Transverse woodwind instrument
	법고	Beopgo	Beopgo Drum	The large Dharma drum played by monks
(선호도)		(37.0%)	(54.1%)	(8.9%)

방탄소년단 슈가의 ‘대취타’ 등 널리 알려진 용어는 우리말 소리만 그대로 ‘Daechwita’로 표기

예외적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판소리(Pansori), 가곡(Gagok), 농악(Nongak), 처용무(Cheoyongmu), 강강술래(Ganggangsullae), 아리랑(Arirang)’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지정된 ‘의궤(Uigwe)’, 세계적인 영어사전인 『메리엄 웹스터 사전』 등에 수록된 ‘시조(Sijo)’는 우리말 소리를 그대로 로마자로 옮겨 적기로 했다. 지난 5월 방탄소년단 슈가의 노래를 통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취타(Daechwita)’ 역시 그 속성에 대한 부가 설명을 붙이지 않는다.

‘표준 번역 시안’은 올해 9월 말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해 국내외 국악 공연장 등에 보급한다.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통합 지원 시스템](#)과 [국립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민 의견 제출처(전자우편): transgugakterm@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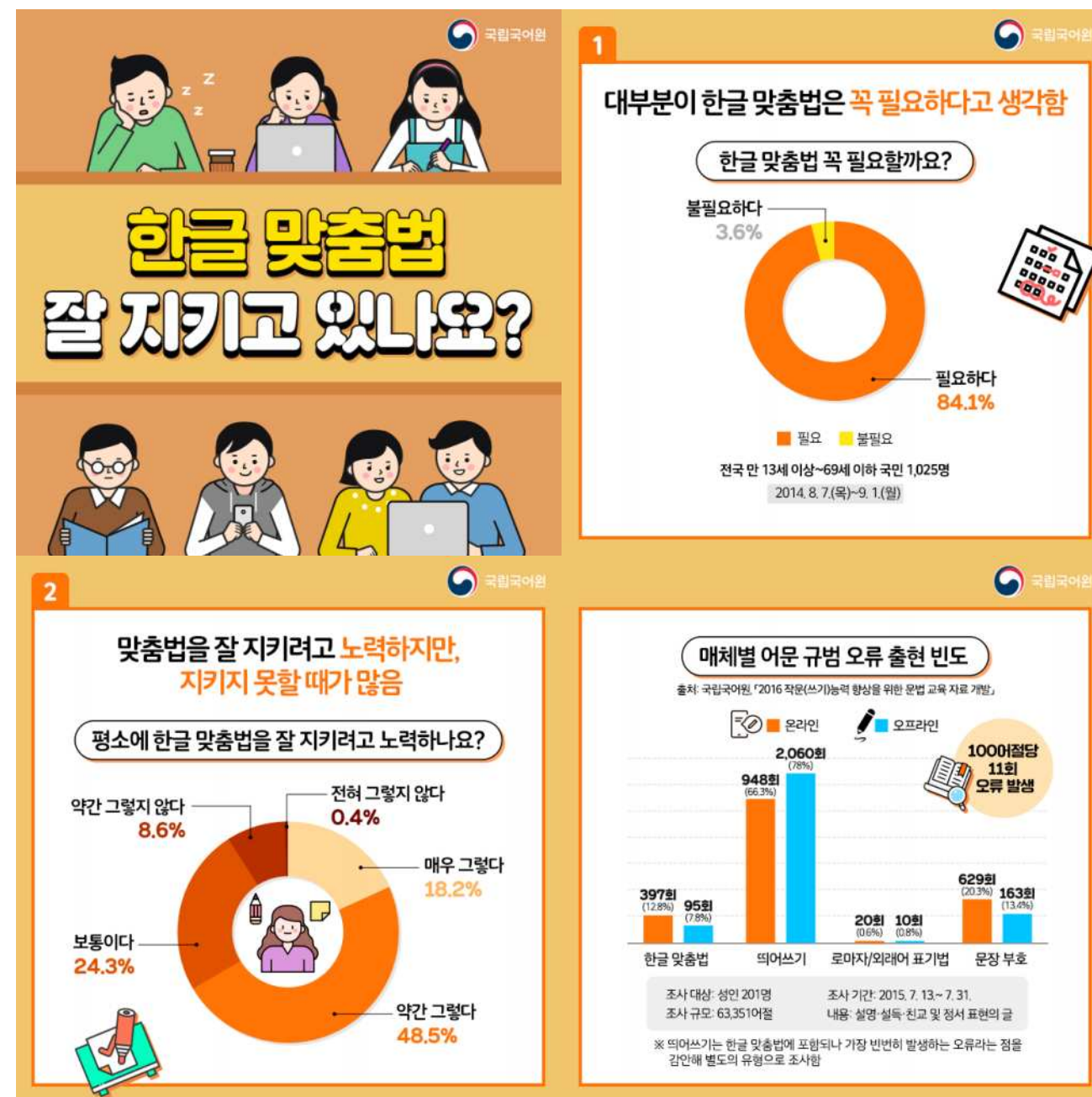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신한류의 확산으로 우리 국악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용어에 대한 표준을 제시해 널리 국악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그 외 국악용어 영문 표준 번역 시안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 잘 지키고 있나요?



요즘에는 말보다 글로 대화할 때가 더 많죠. 글을 쓸 때면 지켜야 하는 약속이 있죠? 바로 한글 맞춤법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2014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한글에 대한 자부심은 높지만 자신감은 낮다.”고 해요. 사람들은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통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 봐요!







코로나 일상



#코로나 블루_대체어_코로나 우울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길어지며 불안, 무기력, 외로움 등
코로나 우울을 겪는 사람도 늘어났죠.

코로나 일상
[위드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일상을 살고 있어요.
코로나 일상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다듬은 말로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생활해야 하는 일상을 말해요.

그러나 불안과 우울감은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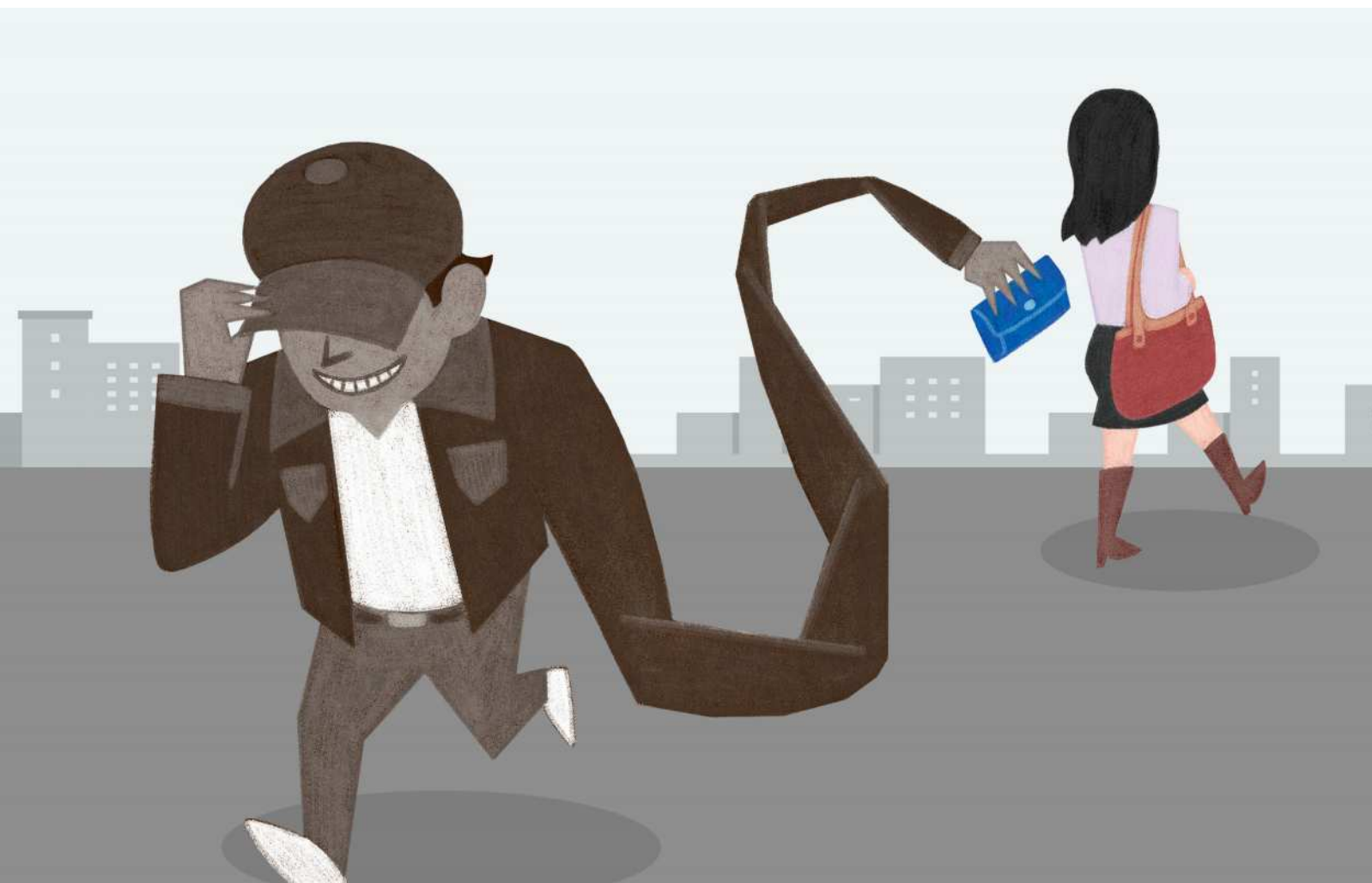
코로나 일상 속에서는
몸의 방역만큼 마음의 방역도 중요해요.

#챌린지_대체어_도전 잇기

평소 해 보지 못했던 일을 **도전 잇기**로 해 보거나
그동안 미뤘 두었던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건강하게 **코로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죠.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까이,
다듬은 말도 가까이하며
모두 함께 코로나19를 이겨 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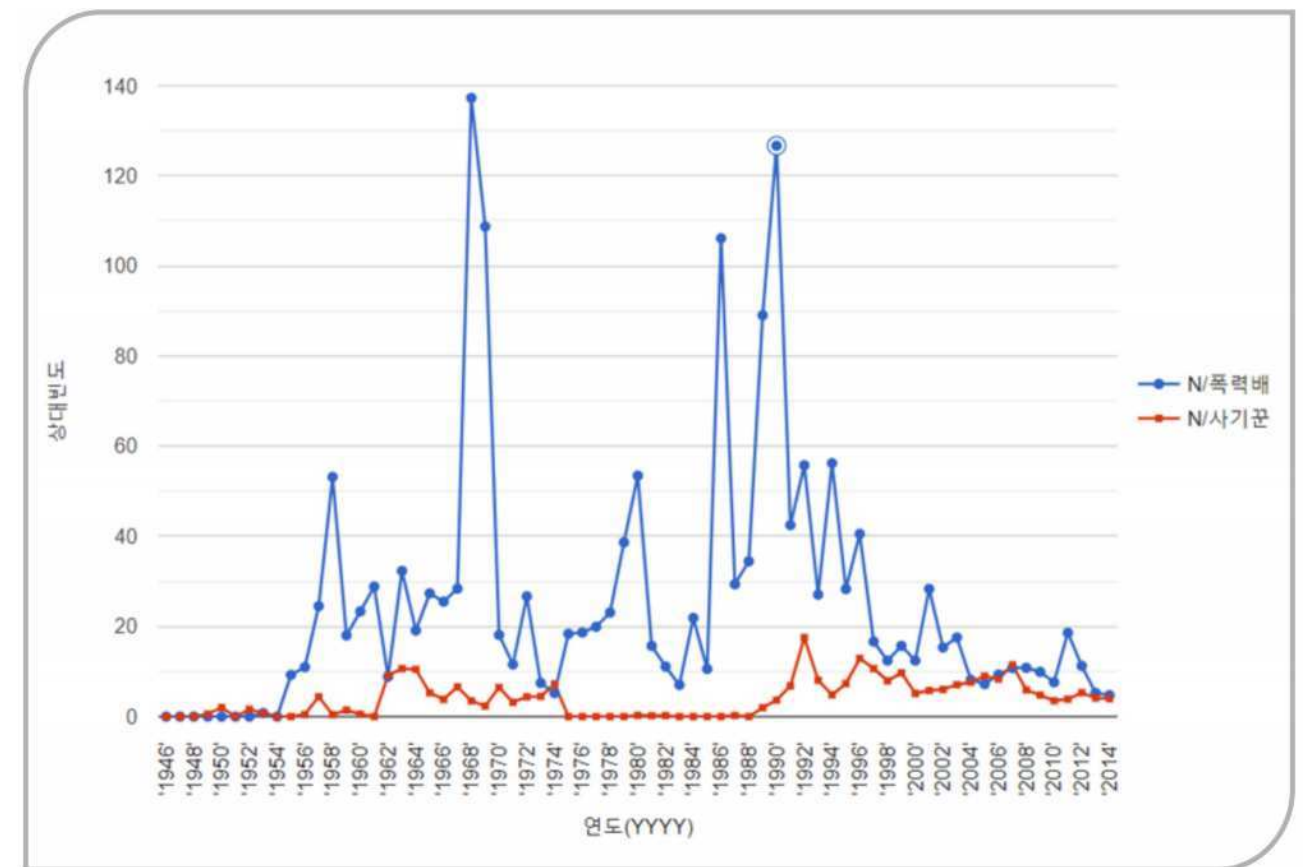
‘나쁜 놈’들 전성시대: 모리배에서 사기꾼까지



글. 김일환 (성신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시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나쁜 놈’들이 있다. ‘나쁜 놈’을 지칭하는 여러 말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피면 우리는 역으로 그 시기의 사회상을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나쁜 놈’ 지칭어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모리배’와 ‘간상배’의 시대: 광복 직후부터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말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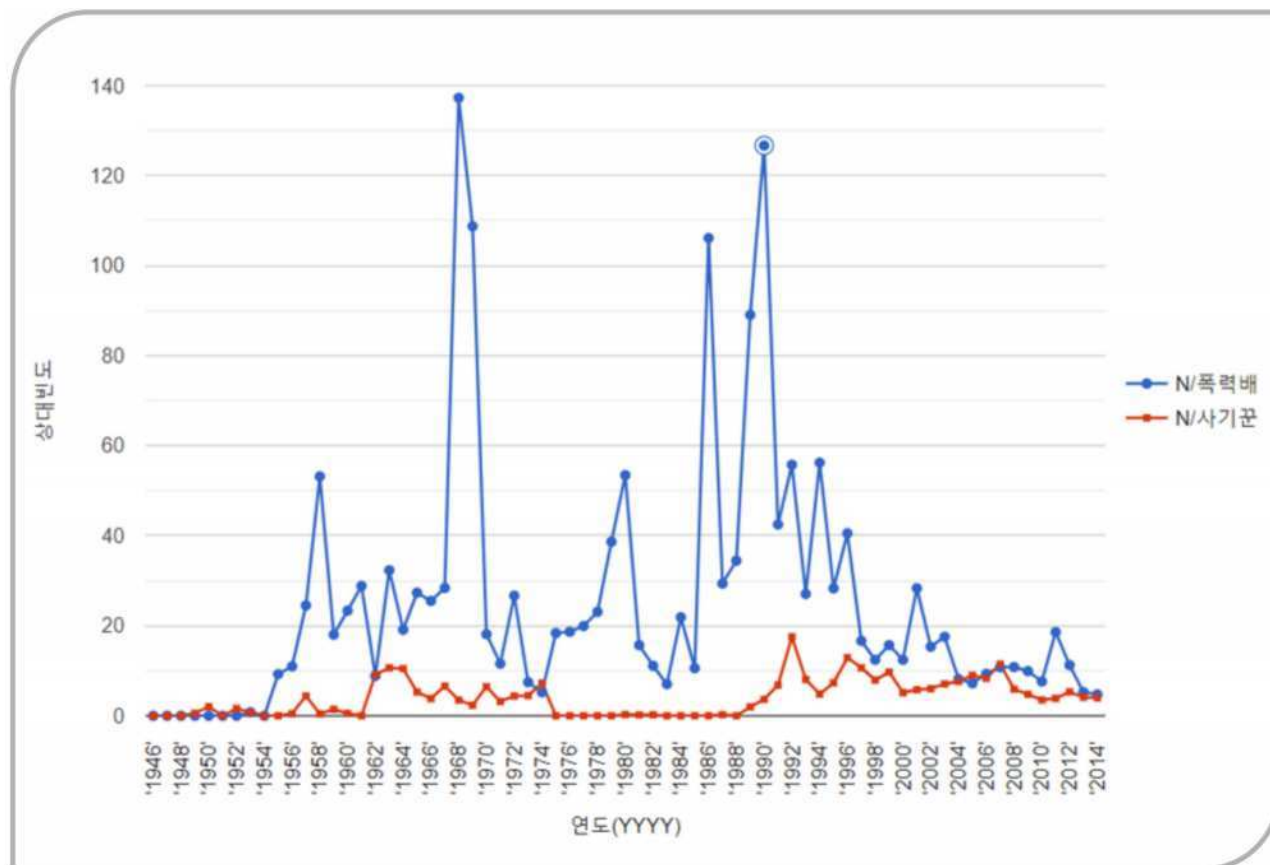


▲<그림 1> ‘모리배’와 ‘간상배’의 사용 빈도(동아일보 말뭉치)

『우리말샘』의 뜻풀이에 따르면 모리배(謀利輩)와 간상배(奸商輩)는 각각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간사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보려는 장사치의 무리”로 정의된다. 두 부류 모두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지만 간상배는 ‘장사치’라는 점에서 그 대상이 좀 더 구체화되어 있을 뿐이다.

두 단어의 뜻풀이만 보면 이들이 광복 이후나 한국 전쟁 직후에만 존재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어느 시대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보려는 ‘나쁜 놈’들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림 1>에서처럼 두 단어는 특정한 시기, 즉 사회적인 혼란이 극심했던 시기에 전성기를 구가했다. 광복 이후 일본인의 재산 곧 적산(敵産)을 처분하는 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의 혼란상, 한국전쟁으로 인한 암울한 상황에서 이들이 크게 ‘활약’했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깡패’와 ‘소매치기’의 등장: 1940년대 이후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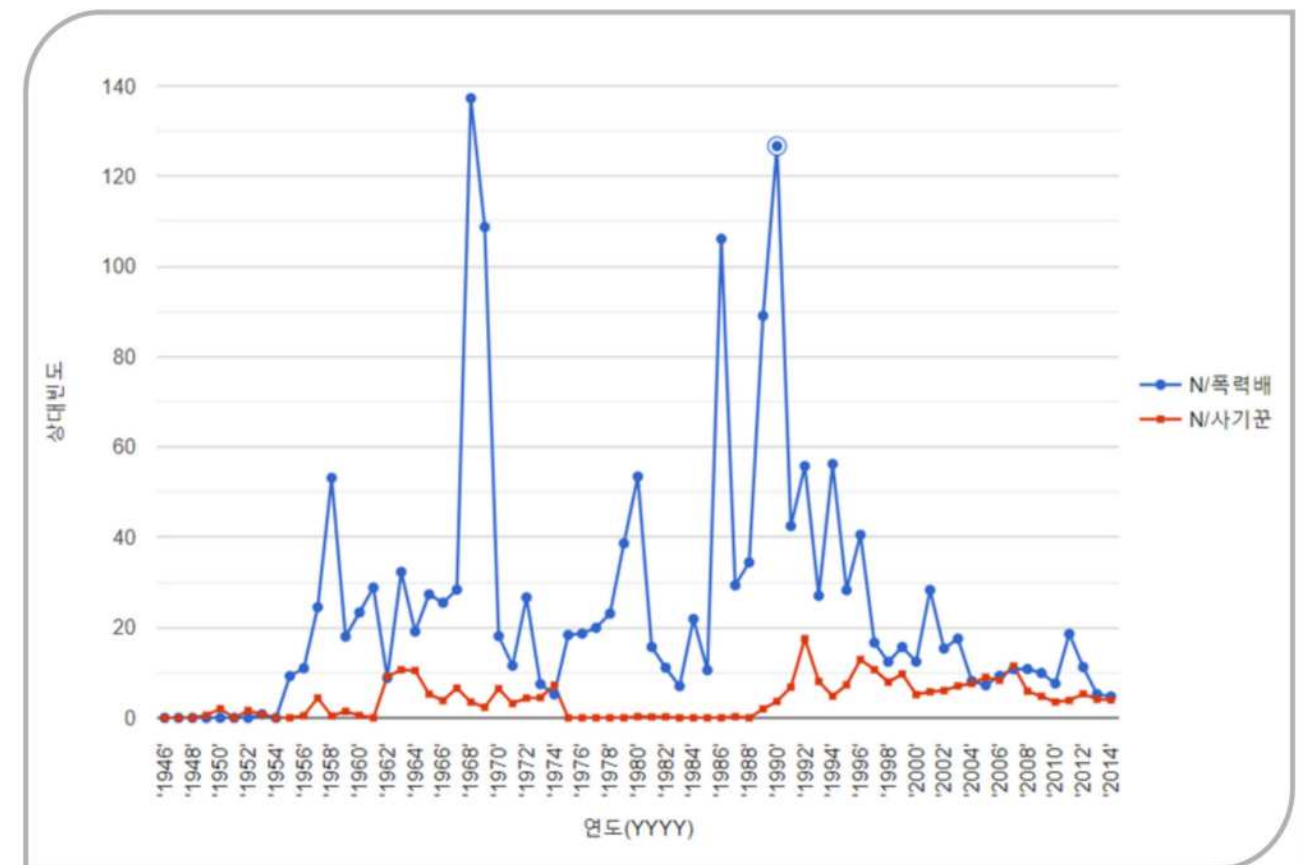
▲<그림 2> ‘깡패’와 ‘소매치기’의 사용 빈도(동아일보 말뭉치)

<그림 2>는 ‘깡패’와 ‘소매치기’가 활약하던 시기를 보여 준다. 사전의 뜻풀이에 따르면 ‘깡패’는 ‘폭력을 쓰면서 행패를 부리고 못된 짓을 일삼는 무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 그 어원은 몇 가지 설이 있다. 전쟁 후 미국에서 들어온 통조림 빈 통(can)을 들고 다니면서 거지들이 동냥을 했는데, 그 통을 ‘깡통’이라고 불렀고, 못된 짓을 하는 거지 패들을 일컬어 ‘깡패’라고 했다는 설이 하나다. 다른 하나는 영어의 ‘갱(gang)’과 한자어 ‘패(牌)’가 결합된 동의 중북형 단어라는 설이다. ‘소매치기’는 ‘남의 몸이나 가방을 슬쩍 뒤져 금품을 훔치는 사람’을 뜻한다. 일본말로는 ‘스리’라고 한다. 소매치기라는 말은 과거에 두루마기 등 소매가 넓은 옷을 입고 그 안에 귀중한 물건을 넣어 가지고 다닐 때 그 안의 물건을 훔치는 짓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한다. 그러니 현대에 이르러서는 소매하고는 관련이 없어진 말이라고 하겠다.

‘깡패’와 ‘소매치기’는 정확히 ‘모리배, 간상배’의 시대가 끝나가던 시점에 부각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깡패’는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를 주 무대로 삼았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말까지 ‘깡패’의 빈도가 특히 높는데, 사용 맥락을 살펴니 모두 ‘정치 깡패’와 관련이 깊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익숙하게 보았던 김두한, 이정재, 유지광 같은 이들이 바로 이때 사람들이다. 1970년대 이후 ‘깡패’의 시대는 저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 사회에서 깡패가 사라졌다는 뜻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뒤에서 보겠지만 ‘깡패’는 ‘폭력배’로 이름을 바꿨을 뿐 변함없이 극성스럽게 사회를 어지럽힌다.

한편 ‘소매치기’는 194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등장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래도 사용 빈도를 보면 소매치기의 전성시대를 꼽으려면 1960년대 중반과 1970년대 중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 이때 소매치기가 많았을까? 혹시 이 시기에 소매치기를 하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서가 아니었을까? 1955년 센서스(총조사)의 전 용어)에서 전국의 시(市) 인구는 528만여 명이었고, 1960년에는 시 인구가 699만으로 늘고, 1970년대에는 서울 533만여 명, 부산 187만여 명, 대구 108만여 명으로 주요 도시만 합쳐도 828만여 명에 달했다. 인구가 도시에 편중되면서 도시에 몰린 젊은이들에게 취업 기회는 없었고 판잣집만 헤아릴 수 없이 늘었다고 한다. 이 시기에 소매치기들이 왜 많았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폭력배와 사기꾼: 지금도 그들은



▲<그림 3> ‘폭력배’와 ‘사기꾼’의 사용 빈도(동아일보 말뭉치)

서울시경은 12일 연에 폭력배 소탕작전에 나섰다.(동아일보 1968. 7. 12.)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6대 도시에 조직폭력배와 인신매매 사범 등 5대 강력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설치된 민생특별수사부가 11일 일제히 발족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동아일보 1990. 1. 11.)

196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전후에는 대대적인 ‘폭력배’ 검거 운동이 있었다. <그림 3>에서 ‘폭력배’ 사용 빈도의 최고조를 보이는 곳 두 부분이 바로 그 시기다. 그런데 1960년대 후반의 ‘폭력배’가 앞서 언급한 ‘정치 깡패’였다면 1990년대 즈음의 폭력배는 ‘조직폭력배’ 이른바 ‘조폭’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조직폭력배’란 조직을 이루어 폭력을 쓰며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무리를 말한다. 그해에는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10.13 선언)’이 선포되었기에 세간에 이 말이 더 자주 오르내렸을 것이다. 한편 ‘사기꾼’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중반까지 쓰이다가 1975년부터 빈도가 잡히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다시 사용이 확인된다. ‘사기꾼’은 ‘습관적으로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기를 저지르는 방법은 취업 사기, 서류 바꿔치기, 보험 사기, 혼인 빙자 사기 등 다양각색이다.

보통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신뢰를 쌓은 다음에 상대방을 속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폭력이 없다고 용서될 성질의 죄는 아니라고들 한다. 그런데 1975년에서 1988년까지 한정적으로 ‘사기꾼’의 빈도가 나타나지 않는 게 이상하다.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에 사기꾼이 없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들린다니 요즘 말로 ‘웃프다(웃기면서 슬프다)’.

이번 글에서는 시기별 사회상을 보여 주는 ‘모리배, 간상배, 깡패, 소매치기, 폭력배, 사기꾼’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실 ‘나쁜 놈’이 어디 이들뿐이겠는가. ‘나쁜 놈’을 근절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지만, 그래도 좀 ‘덜 나쁜 놈’들만 있는 세상이면 좋겠다.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김동진 회장에게 듣는 푸른 눈의 한글학자 호머 헐버트 이야기



우리나라 최초의 순 한글로 된 교과서 《사민필지》를 편찬한 사람. 최초의 국어정책 기관인 국문 연구소 창립에 공헌한 사람. 아래아 폐지와 띄어쓰기 도입 등 한글 표기법의 근대화에도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바로 호머 헐버트(Homer Hulbert, 1863-1949) 박사다. 한글날을 한 달여 앞둔 지금,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김동진 회장과 함께 호머 헐버트 박사를 다시 만난다.



당신은 호머 헐버트 박사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선표, 마침표.》

안중근 의사는 뤼순 감옥에서 일본 경찰이 헐버트 박사에 관해 묻자 “한국인이려면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만큼 우리 근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라는 뜻일 텐데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호머 헐버트는 생소한 이름입니다.

김동진

그렇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조선 말기부터 일제 강점기에 이르기까지 한글 보급과 근대 지식 교육의 기틀을 닦아 주신 분입니다. 그런 분임에도 지금 국어학자들이나 언론인들은 헐버트 박사 이후의 한국인 학자나 운동가들의 업적만 언급할 뿐, 헐버트 박사는 거론도 잘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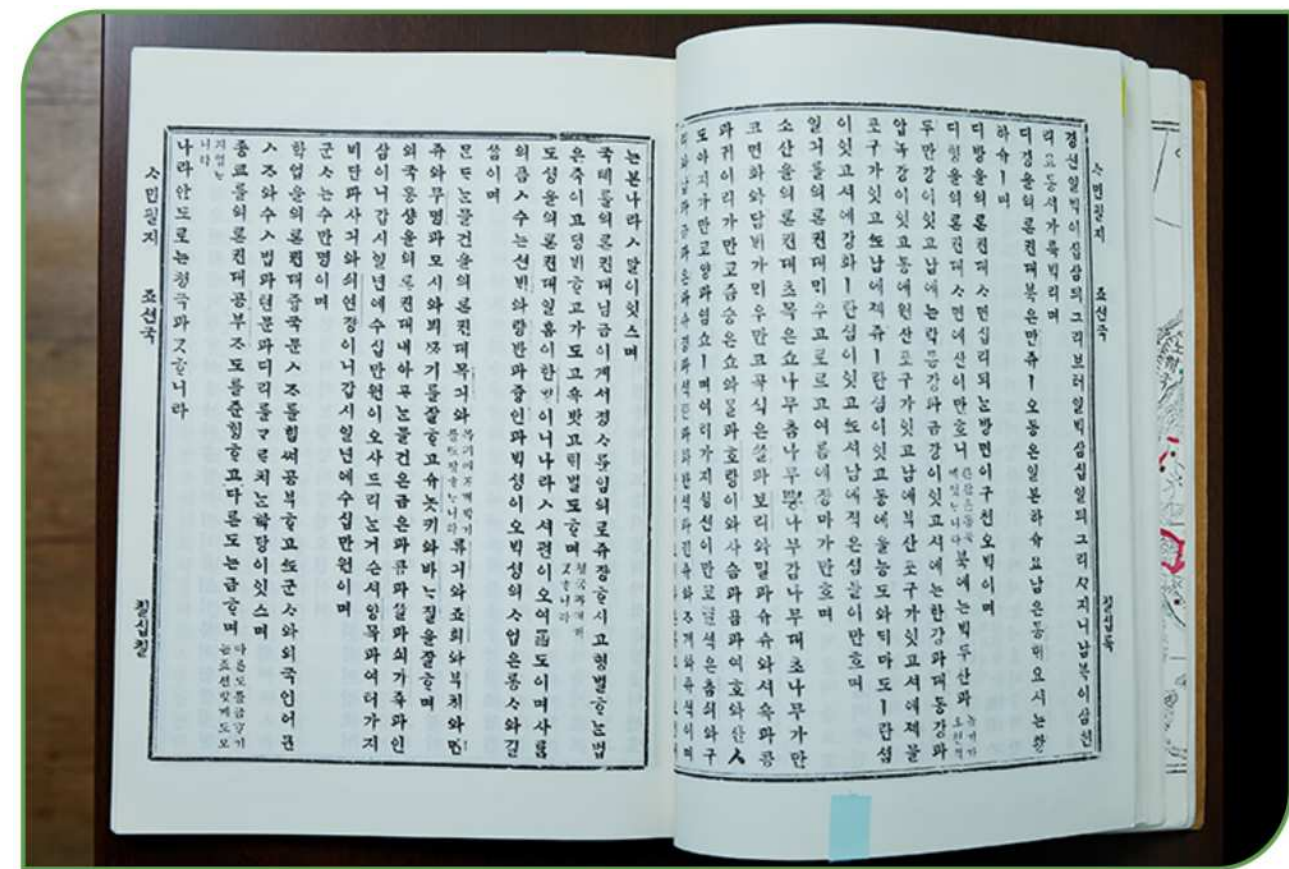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이분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분이 외국인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우리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객관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표, 마침표.》

헐버트 박사의 업적으로는 《사민필지》 편찬이 유명한 것으로 압니다.

김동진

1889년에 발간한 《사민필지(士民必知)》는 우리나라 최초의 순 한글 세계지리 교과서입니다. 천문, 지리부터 각 나라의 정부 형태, 사회 제도, 풍속, 산업, 교육, 군사력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어 서양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었던 당시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아주 유용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치를 더욱 높여 주는 것은 바로 순 한글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책 제목을 풀이해 보면, 선비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알아야 하는 지식을 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책 제목대로 일반 백성들도 읽을 수 있게 하려면 마땅히 한글로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로써 언문일치의 전형을 보여 주는 사실상 최초의 근대 서적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헐버트 박사의 한글 사랑과 애민 정신을 느낍니다. 최초의 근대식 국어 교과서로 알려져 있는 《국민소학독본》(1895)도 국한문 혼용체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순 한글 교과서 《사민필지》에 담긴 박사의 한글 사랑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또, 그 자체로 당대의 국어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국어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사무실에 전시된 《사민필지》 사본
헐버트 박사는 《사민필지》 머리말에서 “조선 언문이 중국 글자에 비하여 크게 요긴하건마는 사람들이 요긴한 줄을 알지 아니하고 오히려 업신여기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리오!”라며 한글 사용을 호소했다.

《심표, 마침표.》

호머 헐버트 박사가 외국에도 우리 한글을 많이 알렸다고 들었습니다.

김동진

헐버트 박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육영공원의 교사로 처음 조선 땅을 밟았는데요. 내한 초기 육영공원에 5년간량 재직하면서, 한글사에 빛나는 세 가지 업적을 남깁니다. 하나는 1889년 미국의 신문 《뉴욕트리뷴(New York Tribune)》지에 기고한 <조선어(The Korean Language)>라는 글에서 최초로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 자모를 국제적으로 알린 거고요.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사민필지》 저술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1892년 《조선 글자(The Korean Alphabet)》라는 논문에서 한글의 기원과 문자로서의 독창성을 학술적으로 고찰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주시경 선생이 우리말의 문법을 완성했다면, 호머 헐버트 박사는 한글 전용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합니다. 한자가 아닌 한글로 써야 조선인들이 지식을 넓힐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하인을 선생으로 삼은 교사

《심표, 마침표.》

헐버트 박사가 처음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였다고 들었는데요.

김동진

헐버트 박사는 육영공원에 파견된 1호 교사예요. 육영공원은 나라에서 세운 학교였으니까 조선 조정에서 녹을 받았죠. 헐버트 박사가 한글을 배운 것은 순전히 교사로서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통역을 쓰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박사는 1886년 7월 5일에 조선에 와서 일주일 뒤인 7월 13일부터 바로 조선 말글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글을 배운지 4일 만에 읽고 쓰기가 가능해, 약 9개월 후에는 조선인들과 학술 논쟁을 벌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사민필지》를 쓴 게 한글을 깨치고 3년 만이니 놀라운 실력이죠.

《심표, 마침표.》

헐버트 박사의 열정이 대단했네요. 그래도 혼자 우리말을 전부 익히진 않았을 것 같은데, 박사의 우리말 선생이 있었나요?

김동진

박사 집에 있던 하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말 선생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를 부친, 어머니를 모친이라고 하면서 일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말만 가르쳐서 세 번이나 선생님을 바꾸었대요. 그래도 마음에 드는 선생을 찾지 못해 나중에는 혼자 문장을 외우고, 그것을 하인에게 말해 하인의 웃거나 울거나 하는 반응을 확인하며 공부했다고 합니다. 헐버트 박사는 회고록에서 “그는 영어를 그때도 못 했고 후에도 못 했지만, 인성이 좋고, 두뇌가 명석한, 평생 빛을 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인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심표, 마침표.》

그 정도였으면 당대에 꽤 유명하셨을 듯합니다. 혹시 교류한 학자들도 있을까요?

김동진

헐버트 박사는 1904년 <한글 맞춤법 개정(Spelling Reform)>이라는 논문을 《한국평론》에 발표했는데요. 그 무렵 지석영, 김가진, 주시경 등과 깊게 교류해서 서로 큰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짐작이 돼요.

주시경 선생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둘은 배재학당에서 사제로 만났습니다. 헐버트는 배재학당 삼문출판사에서 책임자로 있었는데, 형편이 어려웠던 주시경 선생이 출판사에서 일하게 하여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훗날 독립신문 서재필 박사에게 주시경 선생을 추천한 것도 정황상 헐버트 박사라고 추정합니다.

또한 1907년에는 헐버트, 김가진, 지석영, 주시경 등의 거듭된 노력으로 한글 보급청이라 할 수 있는 ‘국문 연구소’가 설치됩니다. 국문 연구소는 세종 시대 집현전 이후로 처음 생긴 국어정책 기관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죠. 지금의 국립국어원과도 맥이 닿아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한글 표기법 정비에도 힘쓰다.

《쉽표, 마침표.》

무엇보다 아래아(·)를 없애고 띄어쓰기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등 혼란스러웠던 한글 표기법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동진

헐버트 박사는 한글만 배운 게 아니라 한국어도 배웠습니다. 언어와 문자를 다 배운 거죠. 《사민필지》에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헐버트가 당시의 관습을 존중했기 때문인데요. 박사가 처음 학교에 부임했을 때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한문도 안 가르치고 이상한 것만 가르친다고 말이지요. 헐버트 박사는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학교에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며 한문도 가르치고 부모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사는 한글 보급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고, 특히 표기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사민필지》가 간행되고 5년이 지나서 《독립신문》이 나오는데 가로쓰기, 띄어쓰기, 가운뎃점 등이 다 돼 있어요. 띄어쓰기와 가운뎃점은 《독립신문》 창간 이전부터 헐버트 박사와 윤치호, 아펜젤러 등 《조선소식》 편집진에 의해 논의되어 오다가 《독립신문》 창간을 계기로 이 땅에 정착되었습니다.



《심표, 마침표.》

회장님은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회장님이 어떤 계기로 헐버트 박사를 만나고, 이렇게 기념사업회를 이끌고 계신지요. 사비를 털어 사업회도 발족시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

이 답은 짧게 하죠. (웃음) 대학 재학 때 헐버트 박사가 쓴 《대한제국의 종말》을 읽으며 이방인인 그가 조선과 조선인을 깊이 사랑했음을 알게 됐어요. 또, 운명처럼 1989년 미국 은행 뉴욕 본사에 근무할 때 우연히 헐버트 박사의 손자를 만난 후 그의 삶에 매료됐죠. 이때 헐버트 박사 연구가 제 소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행 일을 하면서도 시간을 내 그에 관한 자료를 찾는 일에 몰두하면서, 박사에 관한 자료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곤 했죠.

한번은 뉴욕 컬럼비아대 도서관 지하에서 먼지를 뒤집어쓴 채 헐버트 박사 관련 자료를 찾다가 힘이 들어 막 나가려는데 선반 모서리에 부딪혀 책이 떨어진 거예요. 책을 주워 담다가 “한국어가 영어보다 우수하다.”는 헐버트 박사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의 희열은 잊을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사비로 운영하고만 있지 않고요. 기업이나 개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를 도와 주시는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심표, 마침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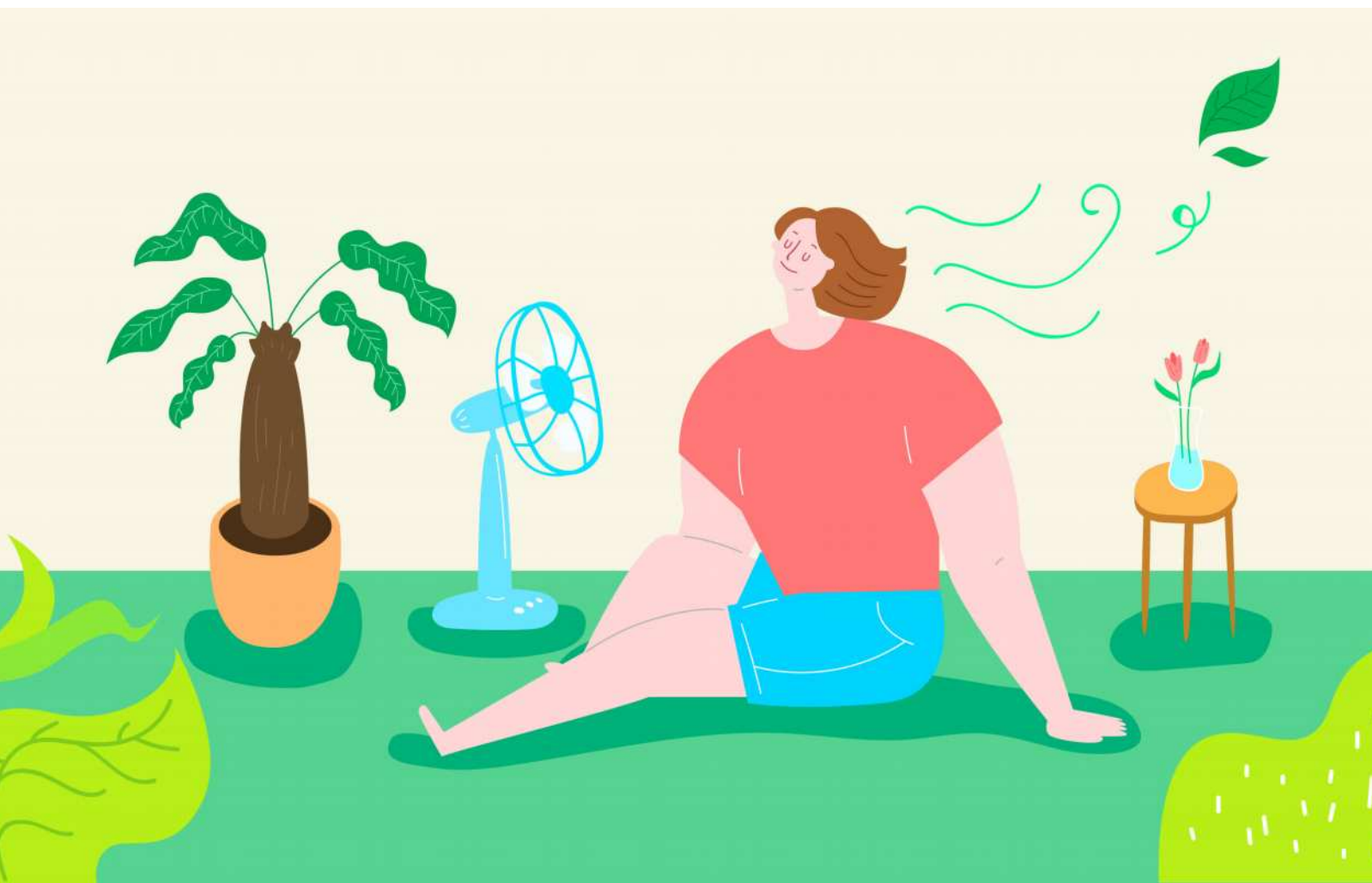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국립국어원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김동진

우리 말글이 외국어에 잠식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그 부분을 국립국어원이 계속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해요. 외국인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매료될 만큼 빼어난 우리 말글을 보존하고 가꿔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헐버트 박사가 가장 원했던 것이니까요.

글: 강은진
사진: 김영길

우리말 풀기



요즘처럼 후텁지근한 날에는 가까운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지죠.
그럴 땐 <<심표, 마침표.>>가 준비한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며
혼자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 보세요!
시원한 커피를 선물로 받으면 마음까지 청량해질 거예요!

문제 1

‘할머니’에게 ‘엄마’는 아랫사람이므로 ‘-시-’를 쓸 필요가 없을 것이나
듣는 사람인 ‘손주’가 ‘엄마’보다 아랫사람이므로
그것을 고려하여 ‘-시-’를 쓴 것이다.
이를 ‘□□’이라고 한다. 존대하는 표현을 덧붙인다는 뜻이다.

단서 쉽게 읽는 문법 용어

문제 2

공개 자료는 국립국어원에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여 구축한 것이며
‘□□□ □□□’ 사이트에서 온라인 약정서를
작성, 승인을 받으면 누구나 파일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단서 국어원 소식

문제 3

‘□□□ □□’은 ‘스토리노믹스’를 다듬은 말로
‘이야기에 관한 경제학’을 뜻합니다. 요즘에는 하나의 이야기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매체 융합 ‘□□□ □□’이
소비자의 흥미를 끌기도 하는데요. 하나의 소설을 영화나 게임 등으로
재가공하여 벌이는 산업활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단서 우리말 다듬기

문제 4

보리밭에 절로 자란 밀 이삭을 끊어다가 밀알을 추려 낸 다음 입에 넣고
계속해서 씹으면 점성이 꽤 강한 ‘□□’이 된다.
이 ‘□□’을 긴 막대기나 장대의 끝에 붙여서
높은 나무에 매달린 매미를 탁 찍어서 잡는 것이다.

단서 표준어 바깥의 세상

문제 5

한편 ‘□□□’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중반까지 쓰이다가
1975년부터 빈도가 잡히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다시 사용이 확인된다.
‘□□□’은 ‘습관적으로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서 말뭉치로 바라보기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 참여하기” 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 수신 동의(필수)를 입력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응모기간

2020. 9. 1.~2020. 9. 14.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쉽표, 마침표>> 10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는 음료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0년 8월 호 우리말 달인 당첨자

김*원(8901) 이*규(9280) 김*오(3431) 곽*현(6779) 신*조(6541)
최*현(3970) 서*수(5168) 김*지(5557) 임*주(2460) 김*리(2978)

우리말 풀기



유난히 모질었던 여름이 지나니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새 아침저녁으로는 바람이 꽤 쌀쌀한데요.
한결 여유로운 마음으로 <<심표, 마침표.>>를 읽고 '우리말 풀기'에도 참여해 보세요.
가을에 어울리는 따뜻한 음료를 선물로 드려요.

문제 1

상대 높임은 일반적으로 네 등급의 격식체와 두 등급의 비격식체로 나뉜다. 격식체에 대해서는 여러 잘못된 설명이 많은데, 정확히 말하면 듣는 이를 대우하는 데에서 '□'을 엄격히 지킨다는 뜻이다.

단서 쉽게 읽는 문법 용어

문제 2

'□□□□□'은 국악용어 전체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추어 적고 그 뒤에 용어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을 영어로 덧붙여 설명하는 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단서 국어원 소식

문제 3

'□□□□□'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다듬은 말로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생활해야 하는 일상을 말해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길어지며 불안, 무기력, 외로움 등
코로나 우울을 겪는 사람도 늘어났죠.
'□□□□□' 속에서는 몸의 방역만큼 마음의 방역도 중요해요.

단서 우리말 다듬기

문제 4

또한 1907년에는 헐버트, 김가진, 지석영, 주시경 등의 거듭된 노력으로 한글 보급청이라 할 수 있는 '□□□□□'가 설치됩니다. '□□□□□'는 세종 시대 집현전 이후로 처음 생긴 국어정책 기관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죠.

단서 우리말, 그리고 사람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 참여하기” 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 수신 동의(필수)를 입력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응모기간

2020. 9. 15.~2020. 10. 6.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쉽표, 마침표.>> 10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는 음료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0년 8월 호 우리말 달인 당첨자

김*원(8901) 이*규(9280) 김*오(3431) 곽*현(6779) 신*조(6541)
최*현(3970) 서*수(5168) 김*지(5557) 임*주(2460) 김*리(2978)